



양해춘 남신레미콘 회장, 춘향장학기금 기탁

남원시 춘향장학재단은 주)남신레미콘 양해춘 회장이 19일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춘향장학재단에 1천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해춘 회장은 지난 2002년 첫 기탁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장학금을 전달해 누적 기탁 금액은 총 5,300만원이다.

현재 양 회장은 춘향장학재단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지속적인 지역 사회 공헌에 앞장서고, 꾸준히 장학사업에 참여해 지역 청소년들의 학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기탁식에서 양 회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싶으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를 위한 나눔을 계속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교대, 학생중심성장 리더특강 3차 성료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최근 GOOD-BYE, 게임을 (미움과 무기력에서 벗어나 삶속으로)이라는 주제로 학생 중심성장 리더특강 3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본교 재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과 외부인 등 총 98명이 참석한 이번 특강은 정신건강의학과 문요한 의사를 초청해 만성 게임을 및 무기력의 원인 분석과 심리·사회·환경적 요인을 고려한 근본적 해법 등을 전문적으로 제시했다.

한편, 전주교육대학교 인성교육원은 2학기에도 학생중심 성장 리더특강을 개설 예비교원을 위한 인성 교육과 리더십 제고를 위한 교육 역량에 힘을 예정이다. /장문성 기자



남원 운봉읍 지사협, 이웃사랑 나눔활동 펼쳐

남원시 운봉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내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특화사업과 민관 협력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내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홀몸어르신·다문화가정·한부모가정 등 총 11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협의체 위원들이 홀몸어르신들을 위해 준비한 건강식품과 다문화가정·한부모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운동화를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함께 전달해 위로와 관심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진안군, 전북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서 활약

진안군은 지난 16일 완주군 일원에서 개최된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 주최, 도종목단체협의회 주관)'에서 관내 어르신 107명이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일반종목 5종목(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테니스, 체조, 탁구)과 민속종목 4종목(고리잡기, 제기차기, 윷놀이, 투호)등 총 9개 종목이 진행됐으며, 도내 14개 시군에서 2,200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쳤다.

대회 결과 진안군은 민속종목에서 고리잡기 우승, 제기차기와 윷놀이 준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일반종목에서 게이트볼 공동 3위의 쾌거를 달성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출신 강아라선수 국가대표 선발’

‘2025 브레이킹K 국가대표 선발전 1차대회’서 청소년 비걸 부문 3위 차지

전주시가 비보이·춤·육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전주시 비보이문화학교’의 ‘전주브레이킹스쿨’ 출신 강아라(비걸, 14)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입상하며 우리나라 브레이킹 유망주의 탄생을 알렸다.



성국 대표로부터 2023년부터 1년 6개월간의 전문 교육을 받았으며, 이번 브레이킹 K시리즈 1차 대회에서 입상하는 쾌거를 올렸다.

한편 전주 비보이문화학교 출신 임장훈(비보이, 19세) 선수가 ‘2024 브레이킹K 국가대표 선발전 파이널 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여 올해 초

진천국가대표 선수촌에 입성한 바 있다. ‘전주 비보이 문화학교’는 이번 대회 비걸부문 강아라 선수의 3위 입상 소식을 연이어 전하며 2년 연속 브레이킹K 대회에서 브레이킹 종목의 스타 탄생이라는 희망을 살게했다.

이번 대회 3위를 차지한 강아라 선수는 ‘브레이킹 댄스를 할 수 있게 든든하게 지원해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전주브레이킹 스쿨을 통해 브레이킹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며,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틈틈이 실력을 쌓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비걸 전지예(25, Fresh Balla) 선수에 이어 전주에서 2번째 국가대표 비걸이 되고 싶다”고 덧붙였다. /권희성 기자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 대회’ 성황리 개최

진안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군 공설운동장에서 개최된 ‘2025년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크로스핏)’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진안군체육회가 주최하고, 진안군역도연맹/진안군역도스포츠클럽이 주관했으며 선수와 관계자 등 800여명이 참여했다.

대회는 엘리트 그룹과 RXD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엘리트 그룹은 정로클럽, RXD 그룹은 GAON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진안고원 전국 쓰로다운’은 청정 자연과 고원지형을 배경으로 한 전국 단위 크로스핏 대회로, 지역 문화와 경제를 결합한 복합형 스포츠 축제로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다양한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제6회 논개배 자전거대회 성료

장수군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제6회 논개배 자전거대회(MTB)’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수군 체육회(회장 이상철)가 주최하고 장수군 자전거연맹(회장 김정균)이 주관했으며, 자전거를 사랑하는 전국의 동호인들이 모여 건강증진과 친목을 도모하는 물론 청정 장수의 자연과 구국충절의 상징인 논개 정신을 기리는 데 목적을 두고 열렸다.

대회에는 전국에서 약 150여 명의 자전거 동호인들이 참가했으며 17일에는 ‘자전거 동호인의 밤’ 행사로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시, 남원향교서 전통 성년례 행사 개최

남원시는 성년의 날을 맞아 19일 남원향교(전교 김시열)에서 전통 성년례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전통 성년례에는 남원향교 유림을 비롯해 성년례를 체험하고자 하는 남원제일고등학교 학생들과 각 기관·단체 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남학생(관자) 20명, 여학생(계자) 20명의 성년자 40명이 전통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갓과 비녀를 착용한 채, 삼가례, 초례, 수훈례, 성년선언 순으로 엄숙한 예식을 치렀다. /남원=김기두 기자



무주 설천면 지사협, 어린이 신문 구독 지원

무주군 설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박종희, 민간위원장 전상호)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의 문해력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린이 신문 구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아동들이 눈높이 신문 구독을 통해 사회·과학·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갖고 나아가 독서 습관과 사고력을 기르도록 돕기 위해 기획됐다.

전상호 민간위원장은 “디지털 문화 확산으로 아이들의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무척 안타깝다”라며 “지속적인 신문 읽기를 통해 문해력과 어휘력을 키우고 이것이 사회 현상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꿈을 키우는 계기도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최덕수 열사 37주기·5·18 45주년 추모

민주화를 외치다 산화한 최덕수 열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광주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자리가 정읍에서 마련됐다.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회장 송기수)는 최덕수 열사 37주기·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아 지난 17일 연지아트홀 야외광장에서 ‘최덕수열사 정신계승 정읍시민문화제’를 개최했다.

정읍에서 태어나 단국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최덕수 열사는 5·18광주민중화운동의 진상규명과 군부독재 철폐를 외치며 분신하여 산화했다. 이번 행사는 이러한 최 열사의 민주주의 수호 의지와 민중항거의 열사 정신을 추모하고 그 숭고한 뜻을 후대에 계승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시민문화제는 최덕수 열사를 기리기 위한 추모사 낭독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다채로운 문화공연과 한화가 진행돼 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열사의 넋을 위로하고 그 정신을 되새기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송기수 회장은 “이번 문화제가 시민 여러분께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독재와 불의에 온



몸으로 항거하신 최덕수 열사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정신을 마음 깊이 새기며 계승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최덕수열사 추모사업회는 최덕수 열사의 조국 사랑과 민주화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시민들에게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을 올바르게 상기시키고, 민족의 자주와 평화통일에 대한 시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보건소, ‘튼튼혈관 건강교실’ 9월까지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일환으로 5월부터 9월까지 읍·면 경로당 16개소를 대상으로 「튼튼혈관 건강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건강교실은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 질환인 고혈압·당뇨병·이상지질혈증의 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는 프로그램으로, 내용은 △혈압·혈당·콜레스테롤 등 기초검사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교육 △증상 및 치매예방교육 △우울 및 감염병예방교육 △구강 및 영양관리, 급연의 건강생활실천 교육 △근육강화를 위한 건강체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건강교실은 기초검사 측정, 주요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과 관리법,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해 만성질환 조기발견율과 조기치료를 높이고 복약관리로 투약 순응률을 높여 합병증 발생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보건소 방문보건팀 김성진 팀장은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들이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 수치를 제대로 인지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며, 주기적인 측정을 통해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스마트유통과, 딸기농가 찾아 일손돕기 ‘구슬땀’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스마트유통과가 최근 농번기를 맞아 축산면 종신리 소재 딸기 재배농가를 찾아 봄철 농촌일손돕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스마트유통과장을 포함한 직원 13명이 참여해, 딸기 수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모주 정비, 잎·러너 제거, 하우스 주변 환경 정리 등 다음 작기를 준비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중심으로 지원 활동을 펼쳤다.

특히 해당 농가는 고령화와 만성적인 인력난으로 인해 적기 작업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이번 지원은 큰 도움이 됐다.

스마트유통과 직원들은 이른 아침부터 약 6시간 동안 현장에 투입되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작업을 성실히 도왔다.

작업에 함께한 농가주는 “수확과 정비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일손이 턱없이 부족해 막막했는데, 공무원 여러분이 바쁜 업무 속에서도 손발 걷고 도와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다”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온인식 스마트유통과장은 “짧은 시간이었지만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었다”고 밝혔다. /김제=곽도태 기자